

# 문은 열었지만...가축법 개정 등 첩첩산중

## ■ 18대 국회 오늘 '지각 개원'

◇원구성 협상=이 협상은 향후 4년 동안의 여야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이며 일방적 양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더욱이 가축법 개정과 국정조사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이를 원구성과 연계시킨다면 상황은 더욱 꼬일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모든 법안의 분회의 상정 전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여부. 특히 열린우리당 시절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양보함에 따라 정권 초기 개혁입법 처리에 실패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어 양측의 법사위원장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17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120대 150 정도로 여야가 대등한 구조였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저희의 의석수가 두 배 정도 되기 때

여야간 국회 개원 협상 타결로 10일 국회 문은 열었지만 허 거꾸기는 국회 내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6일부터 진행되는 긴급현안 질의에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세부 협상 과정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가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막 문을 연 18대 국회 초반의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법사위원장 절대 양보 못한다" 팽팽

## 최고기 국정조사도 범위·기간 등 신경전

문에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고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그는 이어 "3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긴급한 법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토록 하자"고 말했다. 이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경우를 가정하고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축소

하자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용으로 한 발언일 것"이라고 무시하면서 "개원협상 과정에선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제안해놓고 국회 문을 열어놓고서는 말을 바꾸느냐"고 되받았다.

◇가축법 개정=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40여일 국회가 문을 못 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합의한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국익'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이 통상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권 확보 조항에 대한 명문화를 관철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고기 국정조사=증인 심문과 서면 조사, 국내외 현장 조사를 통해 특정 현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어 청문회에 비해 통상 그 기간도 길고 강도도 훨씬 높다. 야당은 가급적 긴 기간 갖게 하고 싶다는 태세인 반면 여당은 조기 마무리를 희망할 공산이 있어 조사범위와 기간, 대상 등을 담겨 될 특위의 조사계획서 작성 작업에서부터 신경전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가축법 개정 문구로 점점 찾아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맡아야"

### 국회 정상화 가교역 민주당 서갑원 부대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10일 국회 개원에 합의,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무려 40일 동안 공전됐던 18대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수석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서갑원 의원(순천시)은 한나라당 주호영 수석원내대표와의 활발한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국회 정상화 과정과 향후 원 구성 전망에 대해 들어왔다.

-한나라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통상 마찰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해 예를 먹었다. 결국 '통상마찰'이라는 표현을 '국익 고려'로 대체하자고 제안, 결국 한나라당이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의 성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원칙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특위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되 야당끼리는 의

석 비율에 따르기로 한 점도 성과다. 또한, 야당이 요구한 통상절차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정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원 구성 협상도 남아 있는데, 핵심 쟁점은

▲일단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오지만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며 16대 국회에서도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상임위원장은 배분 문제는

▲국회는 관례와 전통이 어느 곳보다 중시되는 것이 세계 공통이다.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시정연설 보이콧 할 수도"

### 민주당 일부 의원 주장

민주당 조배숙, 유선호, 박선숙, 안규백, 김재윤, 김상희, 김재경 등 의원 7명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안 정국 조성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고 어청수 검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며 "반드시 이런 요구사항이 선결돼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시정연설 거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최정수' 유종필 대변인

### 4년 10개월만에 물러나

민주당의 입, 유종필 대변인이 9일 4년 10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대변인은 4년3개월간 대변인을 지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기록을 뛰어 넘어 헌정 사상 '최장수 당 대변인'으로 남게 됐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기자를 거쳐 정치에 입문한 유 대변인은 지난 2003년 9월 분당한 새천년민주당의 대변인을 맡으면서 당의 입 역할을 해왔다. 재임 중에 5차례나 당명이 바뀌고 소속당이 원내 1당에서 5당까지 추락하는 등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상천 vs 문희상 vs 김영진 야당 뒤편 '국회 부의장' 쟁탈전

여야가 10일 국회 분회의를 열어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로 하면서 야당 뒤편 국회 부의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중순 일찌감치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부의장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상천 전 대표를 합의를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문희상, 김영진 의원이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11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받고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관세는 구 민주당계 대표인 박 전 대표(70, 5선)와 구 열린우리당계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큰 문 의원(63, 4선)이 맞대결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김 의원(61, 5선)도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부의장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가 불리하다는 관측이다.

당내에서는 선수와 연령, 대선(多選)원칙을 감안하고 당내 화합을 위해 소속파인 구 민주당계 출신 박 전 대표 쪽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구 열린우리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 후보를 지지하며 원칙적인 표결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강하다.



민주당 정세균(오른쪽)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지난 통합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박 전 대표의 '정치적 똘이'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자기 사람 챙기기'에 대한 반발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대표의 의중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 대표가 구 민주당계 대의원들의 지지 댓가로 박 전 대표를 부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합의했다는 설도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도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 대표가 박 전 대표를 밀 경우, 계파 간 나눠먹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모른 척 하자니 구 민주당계와 열린우리당계의 세 대결로 당의 화합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강만수 해임안 7월 정국 '뇌관' 되나

### 민주 내주중 제출키로

민주당이 9일 내주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임건의안이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야권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81석)으로는 해임건의안 발의 요건(100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발의 제안에 대해 민노당(5석)과 창조한국당(2석)은 곧바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선진당(18석)이 일단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당장 발의 단계에 서부터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하지만 선진당의 경우 강 장관의 해임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개각 쪽을 넓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건의안에 대한 야권내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선진당을 설득해 강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성공한다 해도 국회 본회의 처리는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153석)과 친박연대(13석), 친박 무소속 연대(12석) 등 '한나라당 연합군'이 국회 의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한나라당내에서도 이번 개각에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반란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장기-계

무안++장사(장기계)직항

매주 일,목 7회 편성 ₩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출발

북쪽은 고풍적! 가격은 다운!

GOLF 4명부터 출발가액 ₩ 899,000-

문의: 228-6070